

문화시설 BTL 17건 확정

문광부, 7월중 기본계획 고시

선도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도

문화관광부는 6천100억원 규모의 금년도 BTL대상 17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늦어도 7월 중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문광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신청한 33개 BTL 사업 중 17개 사업이 올해 추진 사업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단위시설 사업은 10개 사업 3천720억원 규모이며 복합시설 사업은 7개 사업 2천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단위시설 중 총 사업비 776억원 규모의 대구시립미술관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이번 주 안으로 BTL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부지확보가 완료된 부산영화체험박물관(431억원)과 의왕

시 문화예술회관(500억원), 파주교하도서관(110억원), 제주도립미술관(200억원), 영주종합문예회관(200억원), 인천시립도서관(241억원), 파주시립역사박물관(252억원) 등도 올해 추진 사업으로 확정됐다.

또 구리시문예회관(510억원)과 부천시문예회관(500억원) 역시 부지확보가 끝나는 대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합시설 가운데는 공연장과 복지회관, 노인요양관, 영유아보육관 등을 갖춘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490억원)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문광부는 △경주문화예술회관(700억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200억원) △서귀포종합문화센터(202억원) △안동문화예술회관(500억원) △제주종합문화센터(150억원)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130억원)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사업은 문화

관광정책연구원이 BTL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문광연은 우선적으로 이번주 안에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문광연은 밝혔다.

문광연은 조사 기간이 두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선도사업은 문광부 민투심을 거쳐 늦어도 7월중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타당성조사 책임자인 김규원 문광연 문화정책팀장은 “도서관, 박물관, 복합시설 등 사업별로 기본계획 기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문화시설 분야에서 활발한 BTL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梁忠烈기자 cryang@